종직자 가이오의 절대미션과 절대응답

- 복음으로 여는 요한삼서 -

사무엘상3:7-20, 요한삼서1:1-3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고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주시고 이제 237 모든 족속 나라 민족 살릴 수 있는 절대 목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성취되며 나를 치유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라는 단어 안에는 4가지 시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4가지 단어들은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김 자이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하여 절대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셨고, 사탄의 위상문화 속에서도 제자를 찾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 하도록 하셨다.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수의 완전복음 가진 자가 있었다. 광야 시대에도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두 사람이 있었다. 그 한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신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증거할 요한삼서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과 가이오도 그러한 남은 자 렘넌트들이었다. 시대시대마다 성경에 등장한 그 분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야 믿어지고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의 성령이 중심에 임하지 않고 완전복음이지 않으면 육적인 것에 더 기울어지게 된다. 여러분은 결정을 영적인 것을 하는가. 육적인 것을 하는가. 신앙적으로 하는가. 불신앙적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이르는 것을 넘어서 충만해야 한다. 마귀, 불신앙을 이길 힘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모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시 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그들과 그 후대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 갔다.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를 원하신다. 전도자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모두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종직자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즉 목사님이 한 교회의 종직자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는 성경이 된 것이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하여 중요한 절대미션들과 종직자 가이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응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범사에 잘되는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하고 언약으로 결론 안나면 범사에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만드시려고 한다. 그 원리를 알아야 진짜 응답

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바라신다.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것은 안 되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면 다 따라오게 하신다. 오직 예수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신다. 지금은 시작이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응답을 받아갈 것이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 첫 번째로 종직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선 ‘가이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식주인 가이오를 떠올린다. 그런데 가이오라는 인물이 성경에 3명의 동명이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는 기쁘다’이며, 그 때 당시 많이 사용했던 이름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3명, 또는 4명의 가이오라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1) 첫 번째는 고린도의 가이오이다. 그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고(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말한 식주인(돌보는 자)이다. 그는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2) 두 번째 가이오는 마케도나의 가이오이다. 그는 에베소에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19:29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나 사람 가이오와 이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사도행전 19장 29절)

(3) 세 번째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데베사람 ‘가이오’이다. 디모데의 고향과 가까운 지역이다. 그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여행에서 그리스도부터 마케도나를 지나 트로아까지 동행한 사람이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티와 데살로니가 사람 이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로”(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를 보낸 가이오는 이 세 번째 데베사람 ‘가이오’로 보고 있다. 그는 나중에 에베소지역의 버가모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 이 데베사람 가이오는 요한 사도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귀한 제자였다. 요한삼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저도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바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서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알아도 문제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영적 상태,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언약예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였다.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다. 여러분도 못된 목회자조차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 두 번째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사랑하는 종직자 가이오에게 전달한 절대미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1) 첫 번째 미션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서맛’이 되라는 미션을 주었다. 그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다윗과 솔로몬도 육적인 것이 잘되니까 믿음이 떨어졌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서맛타임, 기도, 예배, 주일성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이다.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영적서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먼저 부탁한 ‘절대미션’이다.

(2)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요한삼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

빠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진리의 말씀중심으로 살라는 것 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리(말씀중심)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먼저 나 중심, 세상중심(돈, 쾌락), 성공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가져다 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배시간에 말씀 속에서 바꾸어라.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살라고 사도 요한이 부탁한 두 번째 '절대미션'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3) 사탄에게 속지 말고 교회를 살리라는 미션을 주었다. 즉, 교회에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에게 휘말리거나 속지 말고 그 나쁜 인간들로부터 목회자와 성도와 랩넛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절대미션을 주었다. 당시 버가모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이다.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게서 양육된', 또는 '제우스의 양자'이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치유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 사역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디라방이고, 전도인이고, 구역장이다. 원충의 역할을 해주고 교회를 이해시켜주어야 한다. 답을 주는 디라방을 하라.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1장 9절과 10절에서 5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도 않고 헌신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추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4)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직 그 사람과 함께 복음전도에 올 인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디오드레베와 반대된 인물이 있었다. 그 인물은 요한삼서 1장 12절에 나오는 '테메드리오'(뜻: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속한)라는 제자이다. 사도 요한은 '테메드리오'에 대해서는 3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 "테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9가지 포인트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상한 사람한테 상처 받지 말고 이런 사람 옆에 가서 배우고 함께 캠프하며 전도하기를 바란다. 한 현장에 가면 '테메드리오'같은 사람이 한명이 꼭 있다.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전도운동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3. 세 번째로, 그렇다면 중직자 가이오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1) "범사에 잘되는"(요한삼서 1장 2절)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가이오는 가정과 후대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 못 믿으면 후대가 고생한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후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이오는 산업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하는 일마다 잘되는 행통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셉도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창세기 39:3에 보면 "그의 주인(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영혼이 잘되면 당연히 이 응답을 받는다.

(2) "건강(강건함)"(요한삼서 1장 2절)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WHO에서는 1998년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1998년 추가)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 한다고 정의하였다. 가이오는 4가지 건강의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역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중직자 가이오는 4가지 건강뿐만 아니라 5력의 응답을 받았다. 그 오력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다. 이 축복과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 믿는다.

(3) 그렇다면 이렇게 '행통의 응답'과 '강건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았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또한 뜻을 정하고 서밋타임을 가졌던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이 무당과 점쟁이들 보다 10배나 나았다.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말씀(사무엘상 3:7-20)을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보다 성전을 가까이 하였던(성전에서 자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사무엘은 두 왕을 세우고 그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모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이 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① 원색적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란다. 이 원색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②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 이것이 디라방이고 팀 사역이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양육을 잘 받은 중직자 가이오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었다.

③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과 기도운동과 말씀포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션홈이고 지교회다. 결국 우리 랩넛들이 중직자가 되어 영적인 인턴십과 전문의 인턴십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지교회 현장에서 진정한 영적인 인턴십과 전문성의 인턴십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복음화 할 수 있다. 결국 중직자 가이오는 버가모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에서는 버가모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로마중심도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를 가이오가 든든히 세웠다.

오늘도 요한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최고의 언약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잘되게 되어 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와 꿈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완전복음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4. Image, 이미지다.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목표와 미래가 생생하게 앞당겨 보일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 테메드리오처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여 함께 나와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